

정체불명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 ‘발각’

지난 13일 통제구역서 추락한 드론 기체 발견 공항 관계탑 무단침입·비행사실 뒤늦게 인지 제항청 수사 의뢰... 경찰 “비행기록으로 추적”

정체불명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무단 침입해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드론이 제주공항까지 무단으로 들어와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경찰은 드론을 날린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하 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제주시 용담2동 제주공항 지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항청에 통보했다. 공항공사는 이날 시설 안전 검사를 하던 중 문제의 드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와 제항청은 드론이 발견된 구체적 장소와 시각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함구했지만 본보 취재결과 정체불명 드론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항청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역 구분 상 드론이 발견된 곳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구역’이자, 항공기 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구역’이다. 또 이 곳은 통제구역 중 하나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가운데 공항 중심에서 반경 3km~9.3km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

공청 안전운항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 반경 3km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 관제과와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한다. 드론 조종자, 비행계획 등을 기입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는 비행승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비행 예정 구역이 공항과 가까이 관제사의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비행 협의 절차는 그만큼 더 엄격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의 드론은 관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동안 제주공항 비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드론은 전부 공항과 떨어진 반경 3km~9.3km 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던 것들이었다. 항공기가 직접적으로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들어와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항청은 문제의 드론을 조종한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담당 수사

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공항 내부에서 불법 드론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제항청 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드론 로그(비행) 기록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항청은 공항공사 통보가 있기 전까지 정체불명 드론이 제주공항에 침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제주공항 관제탑은 24시간 운영되며 42명의 관제사가 배치돼 있다. 24시간 관제가 이뤄지는 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과 제주 등 2곳 뿐이다.

제항청 관계자는 “제주공항 상공에 드론이 정확히 언제 들어와 얼마간 비행했는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드론에는 항공기처럼 조명이 없어 만약 야간에 들어왔다면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가등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2018년 영국에서는 드론이 활주도에 무단 침입하자 3일간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다. 이상민기자

“술깍질깍지벌레 이달말까지 방제 진행”

도, 긴급방제비 10억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술깍질깍지벌레 등에 의해 제주시 한경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가 집단 고사함에 따라 산림청으로부터 긴급방제비로 10억원을 확보해 방제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과 한림읍, 서귀포시 안덕면 등에서 소나무 7000여그루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나무 대다수는 술깍질깍지벌레에 의해 고사했으며 이중 일부는 재선충에 감염됐다.

재선충과 술깍질깍지벌레는 솔잎혹파리와 함께 3대 산림 병해충으로 꼽힌다.

제주에서 술깍질깍지벌레로 인해 소나무가 집단 고사한 것은 2014년 추자도에서 처음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도 본섬에서는 첫 대규모 피해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완전 고사된 소나무는 벌채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제를 진행한다. 또 수세회복을 위해 나무주사와 지상방제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4월 학부모 코칭·7월 대입박람회

교육청, 2024학년도 대입 진학 지원 일정 확정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7월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등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의 2024학년도 대입 진학 지원 일정을 확정하고 27일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진학 지원 일정은 3월 고등학교 신입교사들의 진학 역량 강화 연수로 시작된다. 4월에는 그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를 오프라인 설명회로 확대해 제주시(4월 5일)와 서귀포시(4월 6일)에서 잇따라 실시하고 고등학교로 찾아가는 대학입학전형 설명회도 5월까지 이어간다.

5~6월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 등과 연계한 고등학교 교사 연수를 준비했다. 6월 중순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가 마련된다. 또한 5~7월에는 사관학교, 이공계 특성화대학, 서울

대 등 도교육청·대학 연계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

7월 14~15일에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수시모집 지원이 많았던 60개 내외의 대학들이 참가하는 ‘2024학년도 대입정보박람회 인 제주’를 운영한다. 대입지원 상담이 본격화되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수시모집 집중 상담, 면접 컨설팅, 정시모집 집중 상담 등이 잇따른다.

현재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는 대학입학지원관 3명과 파견교사 2명이 상주하고 있다. 학생·학부모 방문이나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 밀착형 대입진학지원과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금, 표선면 녹산로에선... 27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벚꽃과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의 봄을 즐기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왜곡·조작”

강행저지비상도민회 브리핑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전라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충돌 심각성 결과가 왜곡·조작됐다는

4월부터 6월까지 조사는 철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빼고 조사가 이뤄졌다”며 “4종 10 개체에 대한 이동성 조사는 턱없이 적은 숫자이며 결국 충돌 심각성이 높은 겨울 철새들의 충돌 가능성이 낮게 평가돼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환평이 반려된 이후 조사인 2022년

비상도민회의는 또 “국토부는 법정 보호종이 대략 20종 내외인 것으로 분석하지만 지역 주민이 조사한 법정보호종 조류만 32종”이라며 “더 시급한 긴꼬리딱새, 팔색조, 황조롱이 등에 대한 대책과 맹꽂이 대체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영기자

주변을 수색해 1시간여 만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돌레길을 걷던 중 몸이 좋지 않다가 일행에게 먼저 내려간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일행이 119에 신고했다.

백근기기자 haru@ihalla.com

돌레길 하산 중 50대 숨져

한라산 돌레길을 걷던 50대가 하산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48분쯤 서귀포시 상호동 소재 돌레길 구간을 걷던 A(54)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백근기기자 haru@ihalla.com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

(주)유한고속관광이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통학버스(등·하교)/현장학습/수학여행
오름친목/결혼수송(전세버스 80대 보유)

http://www.yeuhangosog.com

(주) 유한고속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복로 377
TEL.724-9595, 0995 FAX.724-4411